

캐릭터 설정

주인공 캐릭터

1. 주인공 캐릭터 (남,여 동일)

a. 외형



b. 어릴적 헤로도의 공격으로 부모를 잃고 혈혈단신으로 살아온 생존자. 혼자 남기를 싫어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¹로 인해 묵었던 모든 쉘터가 헤로도의 습격을 받아 궤멸되었다. 그러한 배경때문에 주인공은 떠돌이 생활을 하며 살아왔다. 성격은 대범하지만 신중하다. 기본적으로 정의감이 있고 따뜻한 면모를 보인다.

¹ 프로젝트 루카를 노린 헤로도의 공격이다.

플레이어블 캐릭터

1. 유령 소녀 ‘소라’

a. 외형



b. 염력을 사용해 살아가는 소녀 ‘소라’. 소라는 전용 무기인 대형 포크로 몬스터를 공격한다. 항상 느긋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전투 시에도 장난스러운 행동을 하곤 한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달콤한 디저트다. 디저트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운 임무라도 해내는 그녀는 <디저트를 먹을 수 있다>는 제한적인 조건 속에서만 에이스로서 두각을 보인다.

2. 기계 소녀 ‘라푼젤’

a. 외형



- b. 헤로도의 지구침공 이후, 뒤늦게나마 헤로도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연구원들은 암암리에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을 진행하게 된다. 이것이 인간과 기계가 조합된 몸을 가진 소녀 라푼젤의 탄생 배경이다. 거대한 기계팔이 두개골과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정맥과 동맥같아보이는 전선들이 팔을 휘감고 있다. 기본적인 전투는 큰 기계팔을 휘두르는 방식이지만 유사시에는 인간 몸인 본체에 무기를 들어 싸우기도 한다. 성격은 조숙하고 순종적이다. 기계팔은 탈부착 가능.

3. 성냥팔이 소녀 ‘티아’

a. 외형



- b. 다소 안전불감증이 있는 소녀 티아. 어릴 적 우연히 보게 된 큰 불길은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은 티아의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갔고, 티아는 불을 동경하게 되었다. 전방에 강력한 화염을 발사해 적을 불태우는 방식으로 전투를 하며, 전소된 적을 ‘성냥’이라고 지칭한다. 그렇게 그녀만의 ‘성냥 수집’이 시작되었다.

4. 엔지니어 ‘유진’

a. 외형



- b. 쿨한 느낌의 엔지니어 유진. 그녀는 고물상을 운영하던 가정에서 자라 옛날부터 이것 저것 잡다한 기계를 만드는게 취미였다. 하지만 헤로도의 침공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유진은 헤로도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공구를 들었고, 신비로운 힘에 의해 자아가 있는 전투포탑이 완성되었다. 샷건을 사용하며 전투포탑을 맵에 설치할 수 있다.

5. 세라복 소녀 ‘유사’

a. 외형



- b. 평범한 학교생활을 하고 싶은—평범하지 않은 소녀 유사. 그녀가 학교생활을 갈망하는 계기는 단순하다. 헤로도의 공격을 피해 들어간 서점. 서점은 헤로도들의 습격을 적게 받아 캠핑을 하기에 적당한 장소였다. 늘 그랬던 것처럼 유사는 일행을 위해 불침번을 섰고, 지루함이 몰려오기 시작해 캠프에서 멀지 않은 만화책 코너에 잠시 방문을 하게 됐다. 그런 그녀가 우연히 집어 든 만화책은 청춘학원물! 평화로운 세계에서 세라복을 입고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동경하게 되어 그녀의 꿈은 ‘평범한 촌데레 여학생’이 되었다. 무기는 거대한 가위이며 찌르고 베는 것 모두 가능하다.

4.1.3 NPC 캐릭터

1. 첫번째 아르테, 고양이 ‘테미’

a. 외형



b. 투카디가 실험 목적으로 접근한 첫번째 생명체, 테미. 테미는 길고양이 출신으로, 평소 돌봐주던 인간들이 해로도의 손에 목숨을 잃는 것을 목격하고 도망쳐나오다 큰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사경을 해매던 테미의 몸이 어느 순간 붕 떠오르며, 입었던 상처가 하나 둘씩 나아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해로도에게 대항하려는 투카디들의 첫번째 실험이었다. 투카디들의 도움 덕분에 테미는 인간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지능도 높아졌다. 다만 고양이의 몸이라는 단점이 있어 첫번째 아르테임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참여가 불가능하다.